

# 비전홀딩스의 자회사인 비전브이알, 롯데에 매각

롯데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에 매각 완료

배포일: 2021년 7월 26일

오케스트라 어드바이저스 코리아 유한회사(이하 “오케스트라”)가 설립한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제2호 사모투자합자회사”(이하 “OPE II”)는 (주)비전브이알(이하 “비전브이알”, 舊 투토키)을 롯데 그룹의 시스템 통합 계열사인 롯데정보통신(이하 “롯데정보통신”)에 성공적으로 매각하였습니다. 비전브이알은 오케스트라가 2018년 7월 인수한 (주)비전홀딩스코퍼레이션(이하 “비전홀딩스”)을 통해 추가인수(add-on acquisition)한 자회사입니다.

비전브이알은 비전홀딩스 합류 후, 첨단 기술을 갖춘 선도적인 콘텐츠 기업으로 거듭났습니다. 비전홀딩스와 함께 KT, LG유플러스와 같은 통신사의 VR 플랫폼 런칭을 위한 VR 콘텐츠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현대자동차, 메르세데스 벤츠와 같은 브랜드 고객의 마케팅 홍보를 위한 서비스도 제공하였습니다. 2019년에는 일본 Sony의 PlayStation VR 플랫폼 및 중국 OTT 플랫폼 “iQIYI”를 통해 자체 인터랙티브 VR 영화 “하나비”를 성공적으로 출시하였습니다. 이 외에도 이미지 인핸싱, 압축, 메타버스 콘텐츠용 인터랙티브 시스템 등의 독창적인 VR 기술들을 개발하여, 사용자들이 다양한 네트워크 환경에서 고화질의 VR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도록 구현했습니다.

오케스트라의 오홍재 매니저는 “비전홀딩스와 비전브이알간의 시너지 창출은 양사 모두에게 중요한 여정이자 소중한 교훈이었다”고 언급하며, “비전홀딩스는 앞으로도 영화, 드라마, 테마파크 콘텐츠 등 뉴미디어 VFX 사업과 더불어 TV광고 제작 및 후반작업 사업의 글로벌 확장을 위한 여정을 계속 이어갈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본 건 매각을 통해 오케스트라는 성공적인 두번째 투자 엑시트를 기록했습니다. 본 건 매각의 주간사는 KPMG, 법률 자문사는 LAB Partners였습니다.

##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 개요

오케스트라 프라이빗 에쿼티는 동북아시아에 기반을 둔 크로스보더 운용사로서, 중견·중소기업에 투자하여 ‘글로벌 챔피언’으로 성장시키는 프라이빗 에쿼티 펀드입니다. 오케스트라는 투자대상기업의 내재적 가치를 바탕으로 장기적인 성장 관점에서 기업가치 창출에 필요한 지식과 경험을 적용합니다. 또한 피인수기업의 경영진과 긴밀하게 협력하여, 회사의 유기적인 성장 및 지역 확장과 더불어 탁월한 리더십을 통해 사업을 제도화하고 국내외 추가인수합병을 추진하여 기업가치를 제고합니다. 보다 자세한 사항은 [www.orchestraprivateequity.com](http://www.orchestraprivateequity.com)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보도자료에 대한 문의는 [information@orchestraprivateequity.com](mailto:information@orchestraprivateequity.com)로 문의해주시기 바랍니다.

## 비전홀딩스코퍼레이션 개요

비전홀딩스는 광고대행사, 엔터테인먼트사, 드라마 및 영화 스튜디오 등을 대상으로 디지털 서비스를 제공하는 글로벌 크리에이티브 스튜디오입니다. 회사는 30년 이상의 업력을 보유하고 있으며, 서울 100명,

상해와 대만에 40명의 임직원을 두고 있습니다.

### **비전브이알 개요**

2017년에 설립된 비전브이알은 국내 선도적인 초고화질 VR 콘텐츠 개발사로서, 콘텐츠 기획부터 영상촬영, 편집, 완성 작업까지 VR 제작의 전 과정을 수행할 수 있는 기업입니다.